

스윙 시대를 통해 인식된 음악의 사회적 영향

김현중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bonzurm@yahoo.com

The Social Influence of Music Recognized through the Swing Era

Hyounjong Kim

Dept. of Popular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재즈의 역사를 논할 때, 스윙 시대는 이전까지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음악이었던 재즈를 음악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고 지역적 음악이었던 재즈를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만든 시대였다는 사실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재즈 역사서가 기술하였듯이, 스윙 시대의 음악이 단순히 이러한 폭발적 인기와 음악적 성취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29년 시작된 세계적 경제공황과 1939년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스윙 시대가 꽃을 피웠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개리 기딘스와 스콧 드보는 그들의 공동저서 “Jazz”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스윙의 즉흥적인 기교와 당당한 에너지는 미국이 정서상의 막연한 문제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했는데, 그것은 뉴딜 정책에 못지않은 것으로 보통의 시민들에게 활기와 생기와 참여를 제공했고, 연예산업에 막대한 경기부양을 제공했다.” 이러한 견해는 실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스윙이 그 시대의 근심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스윙은 오히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의 정신을 고양시켰다고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경제 상황은 1929년의 경제공황 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정치와 경제 역학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이미 두 지역에서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니 가히 스윙 시대와 비견된다. 그렇기에 본 연구자는 이 시대를 사는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음악이 현재의 고통과 우려를 반영한 음악이 아니라 스윙과 같은 ‘이 시대의 근심을 담고 있지 않은 음악’으로 창작될 때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